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조사 대상 개요

- 대 상 : 일본 사이타마현 오가와마치 등
- 위 치 : 일본 도쿄도 및 사이타마현
- 일 시 : 2015년 6월 18일~21일
- 목 적 : 일본의 마을만들기 선진사례 조사

2. 주요 조사결과

(1) 오가와마치의 30세기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1. 오가와마치 개요

- 위치 : 일본 관동지방 사이타마현 중부
- 역사 : 약 1천 3백여 년
- 대표 생산품 : 전통 한지
- 기타 특징 : 무사시의 작은 교토라 불림

2. 주요 사업내용

(1) 오가와마치 유기농업

-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県) 오가와마치(小川町)는 도쿄에서 전철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인구 약 3만 5천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에도시대 부터 전통 화지, 비단, 일본주 등의 특산품을 에도성에 독점 공급해 온 역

사와 전통을 소유한 지역이며, 특히 1,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가와 화지(小川和紙)는 전국적으로 유명해 오랫동안 ‘화지의 고향’으로 불려오기도 했다.

- 손으로 뜨는 오가와 화지 제조 기술은 지금까지 그 명맥이 이어져 국가의 주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신라의 삼국 통일과 함께 멸망한 고구려인들이 이 지역으로 도주해서 마을을 형성해 살면서 혹독한 추위와 차가운 산수(山水)를 이용해 종이를 제조하기 시작한 것이 오가와 화지의 시초였다 고도 한다.
- 오가와마치는 최근 ‘유기농업의 고향’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고 있는데, 1970년 유기재배라는 말도 아직 낯설었던 시대에, 당시 22살의 카네코 요시노리(金子美登)씨가 유기재배를 시작하였다.
- 낙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농업을 잇기 위해 농업 고등학교를 졸업한 카네코 씨는 농수산부가 개최하는 농업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무농약, 무화학비료로 쌀과 야채를 재배하여 지역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농업의 형태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 자연이 순환하는 농장을 위해 카네코 씨는 고향으로 돌아와 바로 시모사토(霜里) 농장을 시작하면서 그 구상을 구체화했음. 유기재배의 기술도 인식도 아직 확립돼 있지 않던 시대였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과 선조의 지혜를 하나하나 실험하면서 쌀과 채소를 재배했다.
- 1975년 어렵게 10세대의 가정과 제휴를 맺으면서 유기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계절에 맞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면서, 소와 닭, 오리 등도 사육하는 시모사토 농장에서는 모든 것이 순환된다.
- 밭에서 수확한 채소는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논밭의 거름이 되고, 잡초는 가축의 먹이가 되며, 가축의 분뇨와 산에서 모은 낙엽은 퇴비가 되어 토양의 양분이 되고 있다. 다이옥신이나 환경 호르몬 등의 유해물질이 도저히 끼어들 수 없는 자연적 순환 과정인 것이다.
- 1994년부터는 지역의 다른 양조업자와 유기콩과 밀로 유기농 간장 브랜드를 상품화했다. 또 1999년부터는 지역 두부 공장과 함께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부를 출하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유기 농산물을 이용한 지역 특산품이

꾸준히 개발되면서 유기 농업을 중심으로 순환은 새로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탄생과 함께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 이처럼 유기 재배와 지역 산업의 자생적 연계로 시작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2000년에 지역 주부 3명이 NPO법인 생활공방 쓰바사·유(翼·遊 대표 타카하시 유우코)를 만들어 보다 조직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 쓰바사는 유기 재배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지역 만들기가 가능하려면 먼저 유기재배 농가의 수입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유기농 제품으로 두부, 고로케, 주스 등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는 한편, 지역 기업과 유기 재배미 사전 구입 계약을 맺었다. 그 기업은 계약 농가의 쌀을 전량 구입해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나눠준다.
- 또 유기 재배 식품의 우수성을 주민에게 널리 소개하기 위해 유기 재배 농가 주부들이 공동 출자하고, 순번제로 일일 셰프가 되어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2) 오가와마치 풍토활용센터

- 마을 주민 중 유기농사를 짓던 구하바라씨가 질 좋은 액상비료를 얻기 위해 2002년 7월 오가와마치 풍토활용센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을 위한 자금 800만 엔 중 절반은 주민 출자, 절반은 AP 은행에서 연 1%의 저리로 융자를 받아 조달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을 위한 자금 800만 엔 중 절반은 주민 출자, 절반은 AP 은행에서 연 1%의 저리로 융자를 받아 조달했다.
- 이 플랜트에서 연간 3,600M³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며, 혼다기술공업과 메탄가스로 가정용 발전과 급탕설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동으로 개발이 플랜트에서 연간 3,600M³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며, 혼다기술공업과 메탄가스로 가정용 발전과 급탕설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인 관계망을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여 연료화하였다. 참여가구가 16가구에서 100가구까지 증가하였고, 오가와마치 내 모든 학교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다. 참여가구가 16가구에서 100가구까지 증가하였고, 오가와마치 내 모든 학교

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다.

-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는 역할은 행정에서 담당하고, 플랜트 투입 작업은 오가와마치 풍토활용센터 회원들이 당번을 정해 담당한다.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는 역할은 행정에서 담당하고, 플랜트 투입 작업은 오가와마치 풍토활용센터 회원들이 당번을 정해 담당한다.
- 오가와마치 지방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대행하는 대가로 연간 100만 엔의 운영위탁금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보내주는 가정에 로컬머니 3,000엔을 돌려주고 있다.
-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가스 생산 후 남은 액비는 인근 농부들이 ‘액비 출납부’에 기록하고 사용하며, 연말에 톤당 2,000엔을 지불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수입원이 된다.



[그림 1] 사이타마현 오가와마치 이미지

(2) 역사적 경관을 살린 크라즈크리 마을만들기

- 사이타마현 남쪽에 위치한 인구 약 33만 명의 카와고에시는 에도시대에는 작은 에도라고 불리울 정도로 에도성(도쿄의 옛 명칭)의 북쪽 방위 거점으로, 또 물자 유통의 거점으로 번성했던 도시였다. 이곳 카와고에 시에 ‘크라즈크리(蔵造り)’라는 일본 전통 건조물 30채가 도로 양쪽에 나란히 서 있는 상점가(크라즈크리 상점가 혹은 카와고에 1번가라고 한다)가 있다.
- 외벽을 흙으로 두텁게 쌓고 검은 회칠을 한 카와고에 만의 특색있는 전통 마치야(町屋, 상점과 가옥을 겸하는 시전 거리의 가옥)가 잘 보존돼 역사의 향취가 물씬 풍기는 마을 경관을 형성해서 연간 약 6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파괴돼 가던 역사적 건조물을 지키고 마을 경관을 복원하면서 상점가가 다시 활기를 찾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치밀한 노력이 있었다.
- 크라즈크리의 마을 경관이 형성된 것은 1983년 1천3백 호의 주택과 시가지의 3분의 1을 쓸어간 대화재가 그 계기였다. 그 때 일대가 모두 불탔으나 전통적인 크라즈크리 공법으로 지은 오사와(大沢)댁(1792년 건축, 국가 중요 문화재) 건물만이 화재 속에 남아 있었다.
- 당시의 상인들은 내화성이 강한 크라즈크리를 기본으로 마을을 재건했다. 그리고 개화기에 벽돌과 응회석 등 근대적 건축물도 군데군데 들어서 크라즈크리와 함께 독특한 마을 경관을 형성하며 카와고에 1번가로 불리며 상업의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 그러나 60~70년대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철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상업의 중심이 카와고에역 주변으로 옮겨가 크라즈크리 상점가는 점차 침체돼 갔다. 상업의 쇠퇴와 함께 도시 개발의 흐름 속에서 크라즈크리도 칙칙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점차 허물어지거나 파손돼 갔다.
- 전성기때 1백여 채가 넘던 크라즈크리가 30여 채로 줄어들었고 간판과 외관의 변조로 경관 또한 심하게 파손돼 갔다. 이런 가운데 1971년 오사와(大沢)주택이 정부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크라즈크리가 문화재로 평가받았고 1972년에는 구 오야마댁 건물이 팔려 빌딩으로 재건축하려고 하자 시민 중심으로 보존 운동이 전개됐다.

- 그리고 1975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전통적 건조물 보존 지구 제도가 시작되면서, 건축가와 연구자들, 주민 사이에 크라즈크리라는 건축물과 마을 경관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1981년 카와고에 시가 16채의 크라즈크리를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마을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2000년대 들어서서도 크라회는 상점주와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들을 연계시켜 가면서 주민 주체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크라즈크리 상점가는 카와고에 시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 2007년에는 ‘아름다운 역사적 풍토 100선’에 선정됐으며, 이러한 활동이 인정받아 2010년에는 우수 마을만들기 활동 단체로 총무대신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크라즈크리 상점가의 성공은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 인접하는 ‘대정 낭만 상점가’에서도 크라회와 협동으로 역사적 경관을 살린 마을만들기가 시작됐다. 또, 건설회사에서 카와고에 직물 시장을 구입하여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자 크라회가 나서 지역 주민과 협력해 보존 운동을 전개했다. 카와고에 시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구입해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하기로 했다. 크라회는 계절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건물주가 기부한 전통 양조장과 함께 직물 시장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림 2] 카와고에시 크라즈크리 이미지

(3) 폐교를 활용한 도쿄 장난감 미술관

- 도쿄 신주쿠의 장난감 미술관은 타다 현 관장의 선친이 세계 각국에서 모아 온 장난감으로 1987년 나가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다. 건물 한켠의 작은 미술관이 2008년 폐교된 옛 요츠야 제4초등학교로 확대 이전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체험형 뮤지엄으로 발전한 데는 이곳을 후원하는 시민의 힘이 있었다.
- 1907년 개교해 100여 년의 역사를 함께 해 온 학교가 도심의 동공화로 2007년에 폐교되자, 지역 주민은 학교를 역사적 건물로 그대로 보존하고자 했다. 1934년 화재로 소실됐을 때 주민이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 재건한 학교였으며, 전쟁 때 공습으로 주위가 온통 불바다가 됐을 때도 유일하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학교였기 때문이다.
- 협의회를 구성해 2년간에 걸쳐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해 오던 지역 주민은 최종적으로 장난감 미술관에 이전을 제안해 왔다. 협소한 장소로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미술관으로서는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12개 교실의 개조 비용과 10배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는 미술관 운영 경비가 고민이었다.
- 타다 관장은 고민 끝에 시민에게 돈과 시간의 기부를 호소했다. 한 구좌 (1만 엔) 이상 기부한 후원자는 나무에 이름을 새겨 미술관 벽면에 영구 보존하는 이른바 ‘한 구좌 관장’이 된다. 한 구좌 관장제도는 크라우드펀드가 생소한 일본에서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둬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다. 또 많은 시민 볼런티어들이 학예사(instructor) 양성 교육을 거쳐 ‘장난감 학예원’이 돼 주었다.
- 현재 등록자 수가 240명인데, 이들은 교대로 출근해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장난감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놀이의 세계를 넓혀주고 있다“. 도쿄 장난감 미술관은 시민립(市民立)의 미술관입니다.”라고 자랑스레 이야기 하는 타다 관장, 시민에 의한 공공’이 평소 그의 지론이라고 한다.